

고은 불교대하소설

우녀신앙



“나더러 소승(小乘)이라고 탓하는 것인 가. 내 누이가.”
 여기까지 말한 다음 상수가 화제를 바꾸었으므로 더 이상의 충고는 없었다.
 “그런데 말이야... 나 두쪽이 이상하다...”
 오빠는 누이에게 등을 돌렸다. 누이는 조심스럽게 오빠의 등을 만져보았다. 척추 네번째의 뼈가 다른 뼈마디와 달리 약간 불거져 나온 것 같았다.
 “등을 방바닥에 대고 누울 때는 좀 저

눌 하나가 바로 죽었는데... 꼭 그 농처럼 비살거리거든.”
 “올습니다. 저는 비살거리다가 말 것입니다.”
 “사내가 뱀을 좀 키우게... 그렇게 삼삼 개 모양으로 따르지만 말고...”
 “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자네는 하심(下心)이 아니라 자신을 음모없이 낮추는 것이야... 왜 이 집 안에 천상천하유아독존이란 말이 있어 왔

고려의 후예인 상수는 지난날 영지였던 무욕도의 관음신앙을 되살리며 눈을 감았다 그는 우녀를 관세음보살로...

북하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상처럼 옆구리로 누울 수 밖에 없었다.”
 “두고 보아요. 그러다 제 자리로 돌아가겠지.”
 오빠 상수는 다시 화제를 바꿨다.
 “그런데... 우리 상을행자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는가?”
 “우녀보살이 관음 열반상을 관해서 관음정경을 하고 있어요.”
 “네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소리 정근도 하지만 마음 속에서 소리 없는 정근도 하지.”
 “원래 열반이나 승주(禪呪)나 다 구업(口業)되는 중얼거림이기도 하지.”
 “오빠... 이 입으로 다른 업장을 쌓기보다 불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 일이야.”
 누이는 그를 가리키는 우녀보살로부터 오빠가 아주 놀라운 경지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슬쩍 들은 적이 있었다.
 무욕도에 건너오기 전에도 1년에 한번씩은 잊어버리지 않고 알아야 하는 방에 걸려 누워있었다. 그런 병약한 사람이 이

것만... 그 말은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신 말씀도 아닌데 말이지...”
 “오늘 알지 못하면 내일 알게 되겠습니까. 대해님.”
 “허허 도마뱀인가. 잘도 달아나는군.”
 말하자면 상수는 대해와 같은 아무런 수식도 없는 사람에게도 어딘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두드러지는 것이었다.
 결국 상수는 그의 동행자들과도 동떨어진 존재가 되었다.
 “자만 그는 그런 외톨이가 신세에도 불구하고 자선에 대한 어떤 불만도 없었다. 그는 한 곳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다만 그가 있을 입속에서 들릴락말락한 한 마디 말이 있었다. “바다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서방정토에도 마음을 두지 말자(不心海 不心淨土)가 그것이었다.”
 가을이 성큼 왔다. 아침 파도소리가 벌써 자고 난 몸을 울츠러들게 만들었다. 육근(六根)의 참화에는 이같은 추위에 울츠러든 신근(身根)의 반응까지도 포함되는



이 관세음보살이 있는 바다 건너의 보타라가에 가기 위해서 작은 배에 혼자 탄채 어느 만큼의 난바다까지 전승하는 다른 배 두척과 헤어져 그야말로 바다의 흐름과 바람을 잘 받은 파도에 의지해서 관세음보살이 보문시현(普門示現)하는 섬으로 가게 되었다.

관 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왼쪽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온갖 중생들이 당하는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데 그는 항상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다. 그것은 활짝 피어난 연꽃이 아미타 중생들이 본디 갖추고 있는 부처성품(佛性)을 통해서 부처를 이룬 것을 알려주고 있다.

바로 그 관세음보살이 10만여 극대인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혼자가 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다. 이같은 바다 위의 관음신앙은 멀리 천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조선에는 동해 낙산사 흥련암과 서해 무욕도 두 군데로 되어있었다. 언제 누가 그런 신앙을 시작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낙산사만 하더라도 신라 화엄종의 의상과의 인연이 있는 도량이라서 심지어는 그의 선배인 원효가 그곳에서 심한 푸대접을 받은 일도 있었다.

원효가 동해안을 순례하는 중에 낙산사 흥련암 부근의 아나네에게 물 한 바가지를 청하자 생물 대신 여자의 속에 차는 서랍을 받은 것은 피 섞인 더러운 물을 주었던 사실도 그곳이 원효를 거부하는 의상의 도량임을 뜻하는지 모른다.

아무튼 그곳 동해 해물이 무렵의 아침 바다 멀리 문득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척 실감나게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무욕도의 관음신앙은 고려초기에 비롯되어 무신란 무렵부터 즉 끊겨져 무인도가 되고 말았다.
 그렇듯 되자 충청도 서해안의 사람들도 무욕도가 지난 날의 영지(靈地)였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가 인담에 의해서 다시 도량이 된 것이다.

인담도 고려의 선승 담인을 꿈에 본 뒤 아마도 그 꿈속의 스승에 인도되어 이 섬으로 오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인담역시 관세음보살에 대한 유서 따위와는 상관 없는 선승이었다. 그런

그 뒤 상수는 간병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 마치 가을 잠자리처럼 그의 몸 전체에 어떤 재중도 없고 몸 속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을지도 모를 투명함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오작 냉기를 느끼기까지 하였다.

“오래 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갈지라도...”
 이런 말을 나누고 있는 사이 상수가 오빠 상수를 저쪽 숲 언저리에서 호젓이 만나고 있었다.
 상물로서도 이렇게 오빠와 단둘이 있는

그를 데리고 온 요정도 그런 상수를 데려가지마라 성독하였다. 심지어 그의 누이 상을조차 ‘오빠!’ 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이질에 부딪힌 것처럼 여겨졌다.

경우가 이 섬에 와서 처음이었다. 누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 공부에 너무 앞서지 마.”
 “알겠 것도 없다.”
 “아니야. 오빠는 그동안 병을 앓은 것이 아니라 혼자 공부를 한 것이야.”
 “하기야.”
 “그런데 공부를 혼자만 하지 않고 뒤쳐지는 사람까지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진짜 공부가 아닐까.”
 “큰 배에 많은 사람을 태우고 건너가라 이것이구나...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어렸거나 함께 가는 것이 이 도량의 공부야.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눈은 풀속에서 금방 견져올린 것처럼 맑고 얼굴의 어디에는 티끌 하나 달라붙을 수 없이 파란 빛이 감돌았다.
 “우리 도량이 화신(化身)이 나타났어. 화신이랑 그 자신보다 더 거룩한 보살을 대신하기 때문에 자신을 없애버린 공부를 한 보살이기도 하지요.”
 “그대 인담이 맞아요.”
 “너무 울리지 마시오. 다른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대하구려.”

곳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인담스님의 들이나 우녀의 기도나 다른 사람들의 격정들이 뭉쳐서 그를 일어나게 한 셈이었다.
 이곳은 어느 한 사람의 일도 모든 사람의 일이었다. 마음 속의 일차이로 이곳의 미덕이기도 하였다.
 상수는 누이 상을과의 대화 이후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하하하를 보냈다.
 대해와 상수는 어느 모로 보나 대조적이었다. 늘어난 장부의 기상을 지닌 대해에 대해서 상수는 참배한 물에 눈빛 하나 가 막 같이놓은 칼날처럼 서늘이 져 있었다.
 “아이 상수처사! 그대는... 내가 낳은

“바다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서방정토에도 마음을 두지 말자”

것인가.
 대중들이 새벽 예불에 나오지 않은 상수에 생각이 미친 것은 예불을 마치고 나와서였다.
 대해가 말하였다.
 “또 누워버린 것인가?”
 인담이 옆오에게 일었다.
 “간병실에 가보게나.”
 평오가 위쪽 요사채 뒷방에 갔다가 달려왔다.
 “간병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
 대해와 효영 박발들이 달려갔다.
 상수는 아무것도 없는 간병실 방바닥에 아무 단정하게 누운 채로 죽어 있었다.

있던 것 같습니다.”
 우녀는 상수의 식은땀이 배인 하얀 이마가 눈부신 것에 놀라며 지난날 남자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난바다에 실어가 물에 띄워버린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남 각 말고도 또 한 사람이 그렇게 수장(水葬)으로 떠내려간 것이었다.
 그런 상수의 절절한 염원이 담긴 이야기 끝에 우녀 자신의 마음 속 눈도 무욕도의 전생이 보이는 것이었다.
 인담이 이 무욕도에 도량을 열기 이전, 아니 고려 초기의 후삼국전쟁 전제가 여기 저기 남아있을 때 이 무인도에는 관음신앙에 빠진 몇사람이 육지에서 건너왔었다. 그들 중에서 법력(法力)이 뛰어난 여인

아니라 무욕도의 어디에도 고려시대의 자취 따위가 남아있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새의 깃털 하나 남지 않은 것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올라선 것이었다.
 “그대 처음으로 올라선 것이었다. 상수가 이 섬에 건너와서 지난 날의 사라진 관음신앙과 그 관음신앙으로서의 바다 복권에 몸을 내맡겨 죽어가는 적극적인 정토신앙을 되살리는 것이다.”
 상수는 혼자서 이 바다를 건너가려 하다가 끝내 그 비원을 지낸 섬에서 눈을 감은 것이다. 그는 혼자서 우녀를 관세음보살로 섬겼다.

그림·조향숙

사찰안내

- ▶ 위 치: 충북
- ▶ 법 당: 10평
- ▶ 요사채: 20평
- ▶ 대 지: 94평

전 화
0398)591-8271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항, 염주 | 일체 품목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 778-5345, 팩스: 777-1917

공양주 보살을 모집합니다

- ◆ 연령: 35-60세
-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불광산 정토원

전화: 0338)71-8209 · 8210

탈종무효공고

대한불교 태동종
사찰: 서울대한선원 주지 유상재

서울 성북구 주지 명행, 화성 병곡사 주지 남병태, 서울 용문사 주지 김우재, 서울 용문사 주지 김우재, 평택 용문사 주지 박동현, 용인 용문사 주지 김우재, 수원 용문사 주지 최관환, 수원 용문사 주지 김우재, 수원 용문사 주지 최관환, 평택 병곡사 주지 김우재, 수원 용문사 주지 최관환

상기 사찰은 96년 10월 23일 자 현대불교신문에 게재한 탈종공고는 미등록 사찰로 처리 되었으므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1996년 10월
대한불교 태동종 총무원장기하

동불 · 탱화 순금불사 · 불상제작

탱화사

주 소: 성북구 경성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

明堂 사찰부지 묘지터(급매) * 영묘역에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壬佛里)
- 양면: 3350평
- 가격: 평당 7500원(시세반값, 현지종로정가)
- 특징:
 - ▷ 2차선 도로 인접 (코로넬 진입가 도로에서 산까지 1km)
 - ▷ 관공호수 근접, 88고속도 거창 IC에서 10분, 성수공장, 기도원, 회사연수원부지, 명태지목장(다용도산)
 - ▷ 명당터(월계천명당)지점, 산세수려함

연락처: (0343)71-7242 74-7775(산주)

부전스님 및 49제 당일 출장 필요하신 스님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 02)661-2433

포교당 안내

위치: 부산 온천동 최오지
평수: 36평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비품대 가격결정중

연락처: (051)514-0331~2

사찰 안내

- 위치: 목포시내(교동권리)
- 부지: 58평 ■ 법당: 2평
- 요사채: 2세 30평 ■ 비용: 3억 2천만원

연락처 0631-78-1055

사찰안내

산세 수림청정한 곳에 사찰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목포중심지
- 법당: 23평, 요사채: 20평
- 건평: 200평
- 물 지하수, 교통편리
- 비용: 상담후 가격결정

연락처: (062)525-4417 011-579-9865

탈종공고

주 소: 경남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1번지

사찰명: 고 현 사
주 지: 김 원 도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을 수행 할수 없어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6년 10월 25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선공과 기술로써 각 사찰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 년을 가리 남을 정성을 다 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백 합장

전도 송계사: 서흥전, 불단, 속조 구부말: 원통전, 단립, 산신상, 문백, 배주도 한각사: 불단, 단립, 범종동회, 설악산 오세암: 원통전, 삼각산 천화정사: 원통전, 단립회 동, 구룡포 천승사: 불단, 문백, 불교예원: 불단, 문백, 김학박, 영유리 보문정사: 불단, 안양역수암: 불단, 단립, 원통회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0346)553-6480 011-266-6485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지하시던 스님이 말신장의 비유로 후방자를 찾습니다.

위치: 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 50평 (시설 알뜰하임)
보증금: 3000만원
시설임대: 1800만원 - 월세 60만원
연락처: (02)245-0904

* 운영 즉시 영묘 가능합니다.

사찰 운영하실 분

- 위치: 경남 함안군 용곡면(대구에서 1시간거리)
- 부 지: 1400평
- 법 당: 12평 ■ 요사채: 30평(병3개)
- 사무실: 12평(병2개) ■ 주차장: 20평
- 가 격: 1억3천5백

* 교통편리, 전세주거, 도량변경, 20평에서 200평까지 가능
* 가격은 문의후 별도 협의

연락처: (0599)33-4802